

# A Study on Costume Culture focusing on Trading Goods between Korean Envoys of Chosun Dynasty and Japanese Envoys

Ja-Yeon Lee

Silla University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costume cultur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n Chosun Dynasty, based on the fact that there were frequent political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n envoys of Chosun Dynasty and Japanese envoys. This study first takes a look at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n and Japan during Chosun Dynasty era, which made the exchanges between Korean envoys and Japanese envoys possible. This study also examines *Banjeon*, *Byeolbanjeon*, and *Bokjeongpum*, which Korean envoys received from Japan, and *Yedan* and *Byeolpok*, which Korean envoys gave to Japan. Korean envoys of Chosun Dynasty represents exchanging friendship. The name *Tongsinsa* stands for peaceful, friendly, and good-neighbor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Tongsinsa* is composed of three envoys, which are *Jeongsa*, *Busa*, and *Jongsagwan* and other officials like, *Sangsanghwan*, *Sanggwan*, *Junggwan*, *Hagwan*, and so on. About 300~500 people are participated in *Tongsinsa*, which is huge number of people at that time. The traveling expense, which was provided to *Tongsinsa*, is called *Noja*. There were *Banjeon* and *Byeolbanjeon* in *Noja*. *Bokjeongpum* is also provided to *Tongsinsa* with the support from each provinces. *Hojo* provided *Banjeon*

to each envoys, including *Jeongsa*, *Busa*, and *Jongsagwan* and other officials. Various *Po* (cloth)s were provided as *Banjeon*, such as *Po* for making official robes, under garments, outer garments, belts, *Hansamju*, and *Cheunik*. *Bokjeongpum* from provinces included costumes, food, drugs, vessels, and other goods. For costumes as *Bokjeongpum*, *Baekjeopo*, *Hopi*, *Pyopi*, *Nokpi*, *Eopi*, and so on are provided. These were provided mostly from Kyeongsang-province and partly from Cholla-province, Chungcheong-province.

*Yedan*, a gift *Tongsinsa* gave to the Japanese king and his servants. is consisted of *Gong-yedan* and *Sa-yedan*. Costumes among various items in *Gong-yedan* included *Daesuja*, *Baekjeopo*, *Saengjeopo*, *Baekmyeorju*, *Heukmapo*, *Baekpolmyeon*, *Hopi*, *Pyopi*, *Cheongseopi*, and *Eopi*. *Sa-yedan*, provided to the Japanese king and his servants, included *Hopi*, *Baekjeopo*, and *Heukmapo*. *Sa-yedan* of *Suyeok* include *Pyopi*, *Hopi*, *Baekjeopo*, *Saengmapo*, *Mumyeong*, and *Heukmapo*.

Some aspects of costume culture during Chosun Dynasty can be examined through the *Noja*, *Bokjeongpum*, *Gong-yedan*, and *Gong-yedan* of *Tongsinsa*, since specialities and local products of provinces were used for these items.

# 朝鮮通信使와 日本使臣 간의 交流品을 통하여 본 服飾文化研究

이자연

신라대학교

본 연구는 조선통신사와 일본사신간의 정치적 문화적 교류가 빈번하였던 점에 주목하여, 조선시대 조일관계에서의 복식문화의 한 면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내용으로는 통신사행과 일본사신과의 교역이 가능하게 되었던 조선시대의 조일간의 정치적 상황과 통신사행에 관하여 살펴보고, 조선통신사일행이 받은 반전과 별반전 그리고 복정품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통신사일행이 일본측에 제공하는 예단과 별쪽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봄으로써, 조일간의 복식교류의 면을 구명하고자 한다.

조선과 일본이 친분을 교류하면서 일본에 조선의 사절을 파견한 것은 1398년부터 1590년 임진왜란 전까지 13회, 임진왜란 이후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에서 조선으로 파견한 사신은 이보다 훨씬 많았다.

통신사란 서로 친분을 교류한다는 의미이며, 한일 양국의 평화적 우호적 선린관계를 상징하는 명칭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통신사일행의 구성과 인원을 보면, 정사 부사 종사관인 삼사와 상상관 상관 중관 하관 등으로 구성이 되어 그 인원은 300~500명의 막대한 인원이었다. 통신사의 왕복에는 대략 5~8개월 가량이 소요되었으며,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출발하였다.

통신사일행이 일본으로 출정할 때의 여비를 노자라 하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노자는 반전과 별반전, 그리고 각도에서 분정을 받아 통신사에게 지급되는 복정품이 있다.

통신사일행에게 지급하는 반전은 호조에서 의례에 따라 지급하는데, 반전의 내용을 살펴보

면, 정사, 부사, 종사관을 비롯한 통신사일행에게 각각 장복용, 내의용, 외의용, 요대용, 한삼주용, 철의용의 포를 지급하였다.

각 도의 복정물품의 내용은 크게 복식류, 식품류, 약재류, 기용류, 기타잡물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복식류에 관한 품목은 백저포를 비롯하여 호피, 표피, 늑피, 어피등이 있으며, 이러한 것은 주로 경상도에서 가장 많이 복정되었고, 전라도, 충청도에서도 다소 복정이 되었다. 통신사일행이 일본의 국왕이하 각 신하에게 제공하는 예단으로는 공예단과 삼사신의 사예단이 있는데, 공예단의 품목 중 복식류로는, 대수자, 백저포, 생저포, 백면주, 흑마포, 백목면, 호피, 표피, 청서피, 어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 국왕, 약군, 집정 이하 대마도 봉행 등에 이르기까지 지급하는 사신의 사례단으로는 호피, 백저포, 흑마포가 있으며, 수역의 사예단으로는 표피, 호피, 백저포, 백면주, 생마포, 무명, 흑마포가 있다.

관백과 집정, 봉행에게 지급되는 별쪽의 물품은 포류가 주요물품이며, 그 외 먹, 매, 붓등의 잡물이 있는데, 이 중 포류를 살펴보면, 대수자, 대단자를 비롯하여 백면주, 백저포, 생저포, 흑마포, 호피, 표피, 청서피, 어피등이 있다.

따라서, 통신사일행의 노자와 복정품, 그리고, 일본국왕이하 신하에게 제공하는 공예단과 사예단의 물품은 각 지방의 특산품과 토산물을 사용한 것으로 조선시대 당시의 복식문화면에 있어서 단편적이거나 그 일면을 파악할 수 있었다.